

轉換期の 中共을 추적한다

李 鶴 圭

〈産業研究院 地域5室 研究員〉

目 次

1. 머리 말
2. 轉換期の 中共政局
3. 經濟政策의 轉換
4. 社會·文藝界의 變化
5. 맺음 말



1. 머리 말

中共에 있어서 1976년은 未曾有의 激動이 휩쓸고 간 한해이었다. 그해 1월에 周恩來의 死亡, 4월에 天安門事件 발생과 鄧小平의 재실각, 7월에 朱德의 死亡과 唐山大地震 발생, 9월에 毛澤東 死亡 등의 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전 세계의 이목이 毛澤東 死後의 中共指導層 改編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文革以後 권력의 자리에 부상되었던 소위 四人幫이 체포되었다.

이리하여 中共成立 이래 지속되어 오던 毛澤東體制는 종말을 고하고 文化大革命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 격동의 흐름 속에서 中共의 大轉換은 시작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變革은 계속되고 있다.

變革은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毛澤東이

文革을 일으키면서까지 실현하려고 하였던 하나의 社會主義路線이 포기되고 近代化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社會主義路線이 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路線의 轉換과 더불어 政策, 制度, 人事의 修正은 물론 종래의 政治, 經濟, 社會體制에도 커다란 변혁이 가해지고 있다.

1976년에 시작된 中共의 大轉換은 1978년의 三中全會 이후 近代化路線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三中全會 이후 사태의 전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환기의 中共의 실상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2. 轉換期の 中共 政局

전환기의 中共을 살펴보려면 文化大革命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文革은 社會主義革命을 심화시키고 폭넓고 새로운 發展段階로의 도약을 위해 전개되었다.

文革은 毛澤東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권력층, 野心家 또는 대중을 포함한 전체 中共人의 개별적, 집단적 의사를 초월하여 전개된 10여 년에 걸친 사태의 總體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무대가 된 中共 自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다양한 해석과 견해를 허용할 것이다.

天安門事件(1976년 4월)부터 毛澤東死亡(9

월)까지 약 반년 동안 中共의 政局은 毛死後의 權力을 겨냥하여 커다란 기복을 보였다.

天安門事件을 빌미로 鄧小平이 재실각된 후의 中共指導層은 四人幫을 중심으로 하는 文革派, 文革을 반대하며 살아남은 老幹部, 周恩來가 키워 온 余秋里 등 經濟 Technocrat, 華國鋒 등 크게 4개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다.

老幹部들은 文革을 둘러싸고 文革派와 대결에서 2월 逆流事件(1967년 2월)으로 패하고 陳毅, 賀龍 등 유력자의 사망, 文革 이래 그들의 옹호자이었던 周恩來의 사망으로 이미 政權의 핵심부에서 떨어져 있었다.

革命 第2世代에 속하는 經濟 테크노크라트는 鄧小平의 재실각으로 經濟改革·建設이 중단됨으로써 政治權力을 장악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신진세력으로 등장한 華國鋒은 모택동의 후계자로서 毛 다음의 黨政 최고의 권자에 올라섰을 뿐 그 信望은 매우 낮았으며 협력자도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文革 以來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던 文革派의 勢力은 견고하였으며 또한 毛澤東의 측근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天安門事件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중의 지지는 매우 약해 특히 周恩來의 사망 후 모택동의 전면적인 신뢰를 잃고 華國鋒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어쨌든 9월 毛澤東 사망이후 1개월여 동안 사태는 더욱 혼미상태에 빠졌고 四人幫은 權力을 장악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10월 6일 四人幫은 일거에 체포되었고 10월 7일에 열린 黨中央政治局은 華國鋒을 黨中央委員會 主席, 黨中央軍事委員會 主席에 선출하고 總理에 임명함으로써 華國鋒은 毛澤東을 능가하는 黨·軍·政 최고의 자리를 장악하는 인물로 변하였다.

四人幫 제거직후의 中共指導層은 한마디로 反四人幫勢力의 聯合體이었다. 이 중에서 華國鋒은 文革에 이르기까지의 毛路線의 전면적인 繼承과 그 일부인 革命의 高度成長政策을 다시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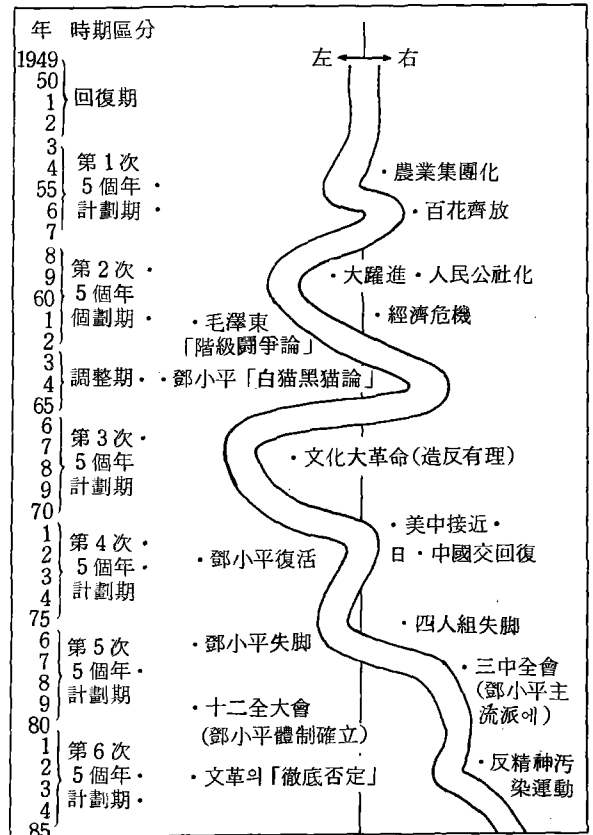
華體制的 政治路線 本質은 제1차 프로레타리

아大革命이 四人幫 추방을 그 표지로 하여 승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고 한 1977년 11全大會 報告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四人幫을 배제하고 자신을 毛澤東의 위치에 내세우려는 “毛 없는 毛體制的 繼承”이라고 말할 수 있다.

華國鋒이 四人幫과 크게 다른 점은 毛路線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現實의 經濟建設에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그 方式이 中共의 綜合的 經濟力, 財政能力, 產業間 均衡을 무시한 것이고 그 指導思想도 경제적 합리주의보다 高指標을 앞세워 主觀的인 能動性을 발휘시키려는 大躍進 以來의 毛澤東 方式을 답습한 것이었지만.

天安門事件을 계기로 四人幫의 勳책과 毛澤東



資料 : 「中央公論」, 1984년 11월, p. 343.

<그림-1> 中共 35년의 波動

의 동의에 의해 실각된 鄧小平의 再登場은 毛의 사망과 四人幫의 추방에 의해 시간문제인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鄧의 재등장에 대하여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黨內 문헌에 따르면 鄧은 四人幫 체포후 최초의 공식활동으로 1977년 4월 黨中央 앞으로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에서 毛澤東 思想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이용하자는 입장으로 부터 凡是派의 見解를 비판하였다.

鄧小平 재등장의 서두는 이렇게 열렸으나 이것은 동시에 毛澤東의 思想, 路線, 政策 나아가서는 毛澤東 자신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킨 도화선이였다.

이 문제는 그후 中共의 轉換期를 일관하여 제기된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여 여러가지 극절을 거쳐 1981년 “建國 이래의 黨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歷史的 決議”(歷史決議)로 공식전해가 발표되었으나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느낌이다.

어쨌든 1977년 7월에 개막된 第10期 三中全會에서 華國鋒은 黨主席, 黨中央 軍事委員會 主席 就任(1976년 10월)의 追認과 함께 鄧小平의 全職務(黨副主席, 副總理, 軍總參謀長, 政治局 常務委員 등)가 회복되었다.

四人幫을 제거한 華國鋒 등 中共의 새로운 지도층은 1977년 8월 毛澤東 사망후 처음으로 黨大會인 11 全大會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四人幫 실각이라는 大變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文革期인 1973년에 선출된 第10期 中央委員의 3분의 2가 유임되었다. 華國鋒이 행한 政治報告는 毛澤東 路線을 거의 전면적으로 계승하는 것이였다.

이 대회는 새로운 黨規約를 채택하였는데 同規約에서는 4個 近代化를 黨의 임무로 규정하여 그후 近代化路線의 전면적인 전개를 준비한 점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 주었다.

黨大會에 이어 열린 一中全會에서는 華를 黨主席에, 葉劍英, 鄧小平, 李先念, 汪東興을 副主席에 선출하였다. 여기에서도 汪東興이 副主席으로 昇格되고 政治局에서는 吳德, 陳錫聯, 陳永貴 등이 재선되는 등 四人幫을 제외한 文革派

幹部 대부분이 유임되어 11 全大會를 정점으로 한 華體制는 人事面에서도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내었다.

이같이 文革路線의 일부 수정으로 완결시키고 한 華國鋒과 文革을 부정하여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는 鄧小平·胡耀邦의 대립은 轉換期의 中共政局을 특징지우는 것이 된다.

1978년 5월부터 毛澤東 思想을 재평가하여 체제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꾀하고자 “眞理基準에 관한 討論”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토론은 改革派가 근대화를 위한 변혁을 추진하면서 毛澤東 사상의 교조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나고 凡是派로부터 權力을 탈취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토론을 통하여 毛澤東 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개혁파가 장악하게 되며 그후 毛澤東을 가지고 毛澤東을 제압하는 정치적 수법이 일반화되어 간다.

1978년 12월 第11期 三中全會는 “中共 성립이래 黨의 역사상 가장 깊은 의미를 갖는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공표된 바와 같이 전환기의 증공에 있어 그 轉換의 方向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이였다.

三中全會는 毛澤東 死後의 華體制 속에서 鄧小平·胡耀邦 등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人事面에서도 陳雲·胡耀邦의 昇格, 1959년 彭德懷 反黨集團에 연루되어 실각된 黃克誠 軍總參謀長 등 9명의 老幹部가 中央委員에 선출되었다.

또한 三中全會에 앞서 天安門事件의 진압 책임자이었던 吳德이 北京市革命委員會 主任에서 해임되고, 三中全會에 이은 中央政治局會議(12월 25일)에서 汪東興이 黨中央辦公廳主任에서 해임되고, 胡耀邦이 신설된 黨中央秘書長에 임명된 것 등은 凡是派의 후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三中全會는 黨路線, 政策, 人事面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그후의 사태의 전개를 돌이켜 볼 때 同會議에서 繼續革命論이 실질적으로 부정된 것이 文革과 近代化路線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三中全會 제급투쟁을 요체로 하는 文革 以來의 테제를 부정하고 毛澤東風의 대규모 대중적인 제급투쟁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결되었음을 코뮤니케를 통하여 발표하면서 文革型 제급투쟁을 부정하였다.

轉換期の 中共指導者에게 가장 크고 곤란한 과제는 毛澤東의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장래를 위해 어떠한 위치에 정립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대화를 지향하는 鄧小平 등 개혁파 지도자는 면밀주도한 준비를 진행시킨다.

그리하여 毛澤東 유산의 정리는 1981년 6월 第11期 六中全會에서 채택된 “建國 이래 黨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歷史的 決議”에 집대성되었다. 歷史決議를 통하여 毛澤東의 위신과 사상은 원칙 계승, 부분 부정이라는 형태로 向後的近代化에 서어비스하는 것으로 재편성되었다.

歷史決議에 의해 文革를 정점으로 하는 毛澤東과 黨의 無誤謬 神話는 공식적으로 붕괴되었으며 이는 中共政局의 質的轉換을 예고한 것이었다.

歷史決議는 轉換期 中共의 중요한 국면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歷史決議를 채택한 六中全會에서 胡耀邦의 黨主席 昇格, 華國鋒의 副主席 降 등이 결정된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周恩來 이상의 강한 政治的 生命력을 보여주었던 鄧小平은 三中全會(1978년 12월)에서 黨路線의 轉換에 성공하고 歷史決議(1981년 6월)에서 毛澤東 評價라는 難題를 해결하고 黨·政·軍 三權의 실질적인 리더쉽을 장악하였다.

1982년 9월과 11월에 12全大會와 第5期 全人代가 열려 새로운 黨規約과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1976년 이래의 中共의 大轉換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 두 대회에서 近代化 實現을 목표로 한 기본노선과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近代化의 實現이 20세기말까지 앞으로의 과제임을 선언하였다.

12全大會를 계기로 庚申改革(年靑化, 知識化,

專業化, 革命化)이 일단락된 다음에도 새로운 권력구조를 다지려는 몇차례의 개혁이 있었고 다소의 반발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鄧小平 자신의 권력뿐 아니라 胡-趙體制의 기반이 굳건히 다져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1983년 10월에 개최된 第12期 二中全會에서는 “整黨에 관한 決定”이 채택되었고 이를 계기로 작년말까지 중앙의 행정부서와 省, 직할시, 각종 自治區와 같은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軍部에서 대규모의 권력개편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권력구조의 정착이 대충 마무리되었으며 40~50세의 젊은 지도자그룹(第3梯隊)의 발탁도 진행되었다.

革命 第2世代인 胡-趙體制가 기반을 굳혀가고 있으나 언제까지 권력의 핵에 남아 있을 것인가. 즉 Post 鄧小平 時代의 권력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革命 第2世대의 권력의 안정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는 軍의 움직임이며 다른 한 요소는 第3梯隊인 革命 第3世대의 동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共靑(共產主義 靑年同盟) 세력인 王兆國(共靑團 第1書記), 廖暉(國務院·華僑事務委員會主任, 胡廖承志 長男), 陳昊蘇(北京市 副市長, 胡陳毅 長男) 등이 실권과 인맥의 주류를 이룰 것이며 이들이 10億人의 지도자로 부상할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은 것 같다.

3. 經濟政策의 轉換

1976년에 시작된 中共의 大轉換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열거한다면 農業政策의 轉換을 빼놓을 수 없다.

즉 1957년의 高級合作社 이래 강력한 농업집단화로부터 各戶請負制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산책임제로의 전환이다. 人民公社化까지 추진된 中共의 農業集團化政策은 특히 농민의 생산의욕 저하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도한 집단화와 대규모화가 가져온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分配의 平均化에 의해 농민의 적극성이 봉쇄되었으며 또한 人民公社化 이래의 農村幹部의 관료화도 농민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8년 三中全會는 농산물 매입가격의 대폭 인상을 결정하고 自留地, 가정부업, 자유시장의 이용 등 종래에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온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집단내의 作業그룹에 의한 請負를 인정하였다.

三中全會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책임제는 농민의 요구에 의해 점차 널리 시행되었으며 1980년 9월에 채택된 “農業生産責任制를 더 한층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관한 몇가지 문제”(75號 文件)는 家族別 生産量·耕作請負를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농업생산책임제의 기본내용은 농민이 가족별로 집단관리기구(대부분의 경우 生産大隊)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은 생산량을 보증하고 集團은 경지의 분배를 보장하며 生産량의 초과달성분에 대하여는 프리미엄을 주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벌칙을 주는 것이다.

농업생산책임제에 의해 농민은 경지의 경영, 경작 관리에 자주성을 부여받고 그 적극성을 급속하게 발휘하였다.

그 결과 집단화가 시작된 1953년부터 1978년까지 農業生産額의 年平均 伸張率이 3.6%이었는데 반하여 1979년 이후에는 평균 5.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화, 油脂作物 등의 換金作物이 뚜렷한 增産을 보여 농민 1인당 收入도 1978~83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되었다.

四人幫이 실각되고 10년에 걸친 文革이 일단락되었을 때 당시 中共經濟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즉 농업생산의 저성장, 경작지의 축소, 大量失業 및 심각한 기술인력의 부족, 硬直의 인제도와 經濟의 非效率性的의 팽대 등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같은 왜곡을 시정하고 특히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中共經濟 전체의 정돈과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3년 副總理로 복귀한 鄧小平의 주요 임무도 경제의 정돈이었으며 후에 퇴진하게 된 華國鋒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인 改革의 方向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鄧小平 등의 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1978년 12월 黨三中全會 이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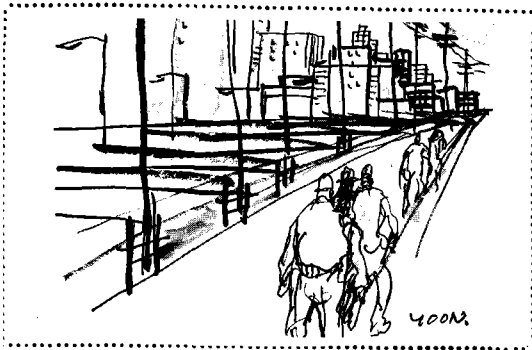
三中全會는 黨活動의 重點을 근대화에 두는 동시에 文革以前부터의 과도한 중공업투자가 야기시킨 農·工業, 重·輕工業間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중공업 편중의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1978년 2월 第5期 全人代 채택)에 의해 혼란이 야기된 經濟建設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鄧小平 등 개혁파 지도자는 “勞働에 상응한 分配”라고 하는 社會主義의 原點으로 되돌아가서 특히 文革期의 主觀的 能動性에 대신하는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인정하였다.

농업에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을 허가하고 공업부문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업자주권의 확대 등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또 경직화된 계획경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계획경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市場原理를 대폭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1979년 초 四川省에서 企業自主權의 實驗이 시작되었으며 7월에는 自主權施行에 필요한 규정 등이 발표되었다.

自主權의 主要內容은 이윤의 일부 유보, 人事權, 計劃外 生産과 販賣의 自由, 一部 對外貿易權의 허용 등이며 1982년부터 이윤 상납을 조세로 대신하는 利改稅(1983년 6월 정식 시행) 등의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表-1〉

主要經濟指標

	單位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實績	前年比 %	實績	前年比 %	實績	前年比 %	實績	前年比 %	實績	前年比 %	實績	前年比 %
國民收入	億元	3,350	7.0	3,688	6.1	3,940	4.8	4,247	7.4	4,673	9.0	5,485	12.0
工業總生產額	"	6,379	8.5	7,077	7.5	7,580	4.5	8,291	8.7	9,209	10.2	10,627	14.2
工業總生產額	"	4,483	8.5	4,897	8.7	5,120	4.1	5,506	7.7	6,088	10.5	7,015	14.0
重工業生產額	"	2,525	7.7	2,588	1.4	2,483	4.7	2,740	9.9	3,134	12.4	3,614	14.2
輕工業生產額	"	1,958	9.6	2,309	18.4	2,637	14.1	2,766	5.7	2,954	8.7	3,374	13.9
農業總生產額	"	1,896	8.6	2,180	3.9	2,460	5.7	2,785	11.0	3,121	9.5	3,612	14.5
食糧生產量	億噸	3,321.2	9.0	3,205.6	- 3.5	3,250.2	1.4	3,534.3	8.7	3,872.8	9.2	4,071.2	3.1
人口	億人(各年末)	9,754.2	1.3	9,870.5	1.2	10,007.2	1.4	10,154.1	1.5	10,249.5	0.9	10,360.4	1.1
小賣物價上升率	%	-	2.0	-	6.0	-	2.4	-	1.9	-	1.5	-	2.8
通貨流量	億元	267.71	26.3	346.20	29.3	396.34	14.5	439.12	10.8	529.78	20.6	-	-
財政收入	"	1,103.3	- 1.6	1,085.2	1.6	1,089.5	0.4	1,124.0	1.8	1,249.0	11.1	1,465	17.3
財政支出	"	1,273.9	14.7	1,212.7	4.8	1,115.0	8.1	1,153.9	1.7	1,292.5	12.1	1,515	17.2
財政收支	"	- 170.6	-	127.5	-	- 25.5	-	299	-	- 43.5	-	- 50	-
設備投資額	"	523.48	4.5	558.89	6.8	442.91	- 20.8	555.53	25.4	594	6.9	735	23.8
未就業者(率)	萬人(比率)	-	(5.5)	-	(3.6)	-	(2.6)	-	(2.6)	270	(2.8)	-	-
商品小賣總額	億元	1,800.0	15.5	2,140.0	18.9	2,350.0	9.8	2,570.0	9.4	2,849	10.9	3,357	17.8
石油生產量	億噸	6.35	2.8	6.20	- 2.4	6.22	0.8	6.66	7.1	7.15	7.4	7.72	8.0
石油生產量	"	1,061.5	2.0	1,059.5	- 0.2	1,012.2	4.5	1,021.2	0.9	1,060.7	8.9	1,145.3	8.0
對外貿易輸出	億美元	136.6	40.1	181.2	32.7	220.1	21.5	223.5	1.5	223.3	- 0.1	244.4	10.1
對外貿易輸入	"	156.7	43.9	200.2	27.8	220.1	9.9	192.9	- 12.4	219.8	10.6	255.3	37.8
對外貿易收支	"	- 20.1	-	- 19.0	-	0.0	-	30.6	-	10.0	-	- 10.9	-
外貨準備高	"	21.54	-	22.62	-	47.73	-	111.25	-	143.42	-	166.74	-

資料：「中國統計年鑑」(1984年刊)，1984，國家統計局公報。

中共 經濟體制改革의 최대목표는 계획경제의 기동으로서 生産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8만여개 國營企業의 生産性 向上이다. 총기업수의 22% (1983년)를 점유하고 공업총생산액의 77% (1983년)를 차지하는 國營企業의 活性化가 달성되지 않고서는 中共經濟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활성화의 돌파구로 나온 것이 종래 國務院의 일부로 基幹産業을 직접 통괄하여 온 機械工業部 등 企業部門의 公司化이다.

1978년말부터 시작된 中共의 경제체제 개혁은 거대한 국영공장에서부터 시골의 찻집에까지 변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 중에는 농업 생산책임제나 개인기업의 振興 등은 文革期는 물론 그 이전의 政策으로 보아 社會主義를 어느 정도 수정한 형태인 것이다.

國內改革을 능가하는 커다란 변화를 보인 것은 門戶開放이라고 불리는 對外經濟關係의 活潑한 움직임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中共의 문호 개방정책은 毛澤東 생존시 對日國交正常化, 對美接近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1972년부터 日中貿易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 그 구체적인 실례이다.

그후 自力更生이라는 혁명적인 國粹主義를 주창하는 文革派의 存在로 對外經濟關係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또한 四人幫 실각 이후 華國鋒 등 지도층은 대규모 플랜트도입을 추진하면서 國內에서는 공식적인 自力更生 堅持를 계속 소리높여 나갔다.

그러나 “洋躍進” 政策이 벽에 부딪치자 改革派는 “洋躍進”의 실패책임을 華國鋒에게 돌리는 한편 한번 열려진 문을 닫지 않고 더욱 넓게 개방함으로써 近代化를 加速化시킬 方針이었다.

이 중에는 종래부터의 交易擴大 이외에도 소련의 借款 全額 返濟以來 완고하게 거부하여 온 원조, 차관 등 外資의 직접도입을 재개하고 더욱 유리한 外資利用의 방법으로서 合作投資, 補償貿易에 착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門戶開放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79년 이후 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 福建省의

廈門에 經濟特區를 설치한 것이다.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주로 홍콩, 화교자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의 감면 등 稅制, 顧傭上의 우대조치가 마련되었다.

特區에서는 外資, 先進技術의 도입에 의한 근대적인 경제체제의 발전을 꾀하고 이것을 전국적인 經濟近代化를 위한 자극제로 활용하는 동시에 “社會主義下的 資本主義”라고 하는 새로운 實驗場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폭적인 문호개방정책의 결과 中共의 對外貿易은 1978년의 약 200억달러에서 1983년의 약 440억달러, 1984년의 약 5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經濟特區에서 가장 개발이 잘된 深圳에서는 1979년~83년 기간중 合作件數 127건, 輸出額 4억 9,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5년간 中共은 合資企業, 合作經營(生産), 補償貿易 등 다양한 형태로 약 67억 달러에 달하는 外國人投資를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經濟特區의 성공에 힘입어 中共은 '84년 4월에 14개 沿岸都市를 개방하였으며 금년에는 揚子江, 珠江, 閩南 三角洲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中共의 經濟體制改革을 보면 1979년 이후 農業部門에서는 生産責任制의 도입과 人民公社의 해체로 농업생산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한편 都市의 企業은 量的으로 확대되었을 뿐 農村에 비하여 生産의 非效率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하여 企業의 活性化가 經濟體制改革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1984년 10월 第12期 三中全會는 企業의 自主權擴大와 生産責任制의 확립, 計劃管理體制의 개혁, 價格體系의 시정, 對外經濟·技術交流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을 통과시켰다.

이는 鄧小平 政權이 처음으로 발표한 종합적인 경제체제개혁안이며 이로써 中共經濟의 開放과 改革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다.

中共은 1984년 10월 第12期 三中全會 이래

숫자로 본 오늘의 中共

<表-2>

國	土	960 만km ² . 소련,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 3위
山		에베레스트봉 8,848 m. 세계 제 1위
江		長江 6,300 km. 아마존, 나일강에 이어 세계 제 3위
人	口	10억 3,604 만명 (84년)
省 最 大 面 積		新疆維吾爾自治區 약 160 만km ² 인구는 160 만명 (83년)
省 最 大 人 口		四川省으로 1억 76 만명 (83년)
都 市 人 口		上海 1,194 만명, 北京 934 만명 (83년)
輸 出 入 總 額		436.2 억달러 (84년)
GNP		총규모는 3,417 억달러, 1인당 GNP는 335 달러 (83년 美 CIA 자료)
食 糧 總 生 產		4억 712 만톤(84년) 세계 제 1위 . 1인당 생산량은 457 kg
石 炭 生 產 量		7억 7,200 만톤(84년).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제 3위 매장량은 1조 4,250 억톤으로 세계 제 1위
原 油 生 產 量		1억 1,453 만톤(84년). 세계 제 7위
發 電 量		3,746 억 kwh (84년). 세계 제 6위
粗 鋼 生 產 量		4,337 만톤(84년). 세계 제 4위
自 動 車 生 產 量		31.5 만대 (84년)
자 전 거 生 產 量		2,857 만대 (84년)
칼 라 TV 生 產 量		129 만대 (84년)
農民 1인당 年 平均 純 收 入		355.3 원 (84년)
도 시 노 동 자 月 平均 收 入		69 원 (83년)
1인당 1일 영양섭취량		2,877 칼로리 (83년)
鐵 道 總 延 長		5만 8,672 km (83년)
人 民 解 放 軍		陸海空軍 합계 약 400 만명 (84년)
共 產 黨 員 數		약 4,095 만명 (84년)
大 學 卒 業 生		33만 5,000명 (83년)
文 盲 率		23.5% (83년)
油 田		大慶油田(年產能力 4,961 만톤)
炭 鑛		山西省 大同炭鑛(年產能力 2,350 만톤)
水 力 發 電		劉家峽水力發電所(容量 116 만 kwh)
航 空 路 線		北京—烏魯木齊—上海—北京(全長 3,635 km)
最 長 橋		南京 長江大橋(全長 6,772 km)
省 別 工 農 業 生 產 總 值		江蘇省의 825億元, 1인당 생산액은 遼寧省의 1,735 원, 上海市의 6,058 원
縣 別 農 業 生 產 總 值		江蘇省 無錫縣 9.1億元

都市를 중심으로 한 經濟活性化를 위한 改革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1979년 이후 실시된 諸改革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5년부터 향후 3개년간에 기업의 자주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 行政과 기업의 분리, 指會의 指標의 삭감과 指導性指標 등의 도입 등을 시도하고 物價體系의 시정, 노동·임금제도의 조정 등을 기본적으로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다.

결국 앞으로 中共經濟는 근본적으로 계획경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가능한 한 명령적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조세 및 가격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이용한 指示的 計劃으로 자유시장 메커니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다.

中共은 改革 自體의 성과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이며 經濟改革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4. 社會·文藝界의 變化

中共 성립까지의 혁명의 격동, 성립이후의 수많은 변혁, 10년에 걸친 文革, 최근 수년 동안의 大轉換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은 아니 매우 완만하게 변화하는 歷史的인 所産으로서의 中共社會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人民의 主權과 平等을 내세우면서도 기회가 있으면 特權化하고 大衆을 무시하는 수많은 權力者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헛된 반항보다 복종을, 복종보다 적극적인 추종으로 더 좋은 생활의 기회를 찾으려 하는 大衆의 性向이 社會의 기반을 이룬다.

革命에 의해 청산되었던 舊體制가 그 형태를 잊어버렸으면서도 社會主義를 부르짖는 오늘에 있어 많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중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은 어쩌면 中共에 있어서의 革命과 傳統의 복잡한 相克이라고 할 수 있다.

中共社會의 이같은 특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文革의 혼란과 文革 이후의 混迷 중

에서 人間關係는 증시되었다. 질서를 잃어버린 사회는 법률, 정책, 제도보다도 개별적인 인간 관계로 크게 뒷걸음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원래 계획과 시장을 통하여 행해져야 되는 正當한 經濟활동이 關係(Connection)와 부정한 수단에 의존하고 선물 등을 이용한 관계의 활용이 개인에 한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음악회나 연극표를 구하거나 名醫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도 關係를 이용하여 선물을 주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많다.

이는 취직, 住宅配分, 휴가제, 여행증명 등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절실한 일이 되고 있다. 이 關係를 극복하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그 근본원인이 되는 절대적인 물품 부족과 관리의 關口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中共社會에 보편적인 또 하나의 특색으로는 單位主義를 들 수 있다. 單位란 관청, 공장, 公社, 학교, 군대를 불문하고 하나의 인간이 所屬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다.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自己證明의 근거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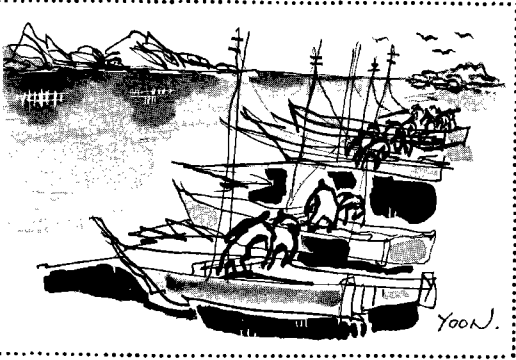
中共의 社會는 이같은 무수한 세포와 같은 單位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위를 단위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活動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각 單位에는 개인의 身上記錄(檔案)이 있어 경력, 정치성향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직장을 옮기면 檔案도 같이 따라간다.

또 각 단위의 黨組織이 政治學習과 活動을 조직하고 선거도 單位別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는 통상의 급여와 장려금은 말할 것도 없이 식량, 직물 전표(糧票, 布票), TV와 자전거 구입표도 각 단위가 배분한다.

社會組織으로서의 單位는 이발표, 영화표, 목욕표, 의료비, 연금을 지급하고 레크레이션 활동을 열기도 한다.

특히 큰 單位에는 탁아소, 初·中學校 그중에는 고등학교나 단과대학까지 운영하는 것도 있



으며 宿所가 단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생활을 單位 안에서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이 單位는 業務組織인 동시에 生活組織이며 퇴직노동자의 자녀를 그 單位가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경우에는 共同體的인 組織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中共社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單位組織에도 변혁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單位組織은 앞으로도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지될 것이지만 근대화화를 위한 經濟, 社會活動의 流動化와 더불어 일정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中共社會의 轉換 속에서 심각한 것은 青年層의 思想的 混迷이다.

1981년 2월 人民日報에 실린 청년의식조사에서 1,000명의 청년 중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3분의 1,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응답한 수가 겨우 10%이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共產主義·黨·近代化를 믿지 않는 “三信危機”라는 것도 있어 中共 지도층은 1981년 2월부터 “五講四美”(절도있는 행동, 예의, 위생, 질서, 도덕을 중시하고 마음, 말씨, 행동, 환경을 미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최근에는 “三愛”(조국·사회주의·공산당)도 부르짖고 있다.

中共當局은 청년층의 사상적혼란의 원인의 하나로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하고 “부르조아 부패문화”의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중요한 원인은 中共內의 不平等, 不公正, 不合理 등에

있는 것이다.

四人幫 실각이후의 中共文藝界는 문자 그대로 활기를 띠고 있다. 그 선두주자가 盧新華(傷痕) 劉心武 등이 신인이었고 文學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을 충실하게 한 것은 1957년 反右派鬪爭에서 추방된 周揚, 巴金, 丁玲 등 作家들의 등장이었다.

연극계에서는 周信芳, 馬連良 등 四人幫의 박해를 받아 사망한 傳統京劇 배우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革命模範劇”에 식상한 사람들은 전통극 부활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

최근 사회, 경제, 생활의 자유화는 文藝界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요즈음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비판 논설은 문예계 전반에도 커다란 용기를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鄧小平은 그의 실용주의 정책을 순탄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 지식인층 특히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실 정치적 필요성에 바탕을 둔 近代化를 위한 제한적 百花齊放이라는 지금의 문예계 분위기는 中共人들의 정신세계에 어찌하면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5. 맺음말

中國大陸에 급격한 바람을 일으켜 온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實用主義體制는 경제의 신속한 성장, 실업문제의 해결,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달성함으로써 그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제 힘으로 빈곤으로부터 몸을 끌고 나오는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共產主義와 中共文化를 융합시켜 토착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中共이 그 거대한 몸을 이끌고 추구하기 시작한 近代化의 길은 역시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지만 결코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中共의 社會主義가 곤란한 국면에 직면했을 때 黨內外로부터 路線鬪爭이 제기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